



해외 동향

□ 보잉사, 글로벌 R&D센터 한국에 개소

- 지난 1일, 해외 7번째 글로벌 R&D센터인 BKETC(Boeing Korea Engineering&Technology Center)를 서울에 개소
- BKETC(Boeing Korea Engineering&Technology Center)의 기대 역할
 - 미래 항공기술(스마트 캐빈·차세대 항공전자·자율비행·인공지능 등) 개발
 - 항공산업의 중심을 기체 구조물에서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고도화
 - 도심형 비행체(PAV)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기술과 산업 생태계 구축
 - 미래 항공 부품 개발·생산 및 고급 일자리 창출

□ 볼로콥터, 싱가포르 도심서 에어택시 시험 비행

- 세계 최초로 에어택시 상용 서비스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볼로콥터社, 싱가포르 도심 빌딩밀집지역에서 볼로콥터(Volocopter)시험비행 수행
- 볼로콥터社는 볼로콥터의 개량 모델인 ‘볼로시티(VoloCity)’를 2022년에 선보일 계획
- 볼로시티(VoloCity)는 시속 100km 속도로 35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음
-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해서는, 안정성 확보, 이착륙 시설 등 인프라 구축, 항공 트래픽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



볼로콥터(Volocopter)

- 헬리콥터와 드론을 결합한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항공시스템 형태의 에어택시를 일컫는 말이자,
- 2011년 설립, 인텔, 다임러 AG, 길리홀딩 그룹 등이 투자한 항공기 개발 회사



국내 동향

□ '서울 ADEX 2019' 성황리 폐막

- 10.15.~20. 6일간 서울공항 일원에서 열린 전시회에 34개국 430개 업체 참가, 201억 달러(20.1조 원) 수주상당 달성(비공개 실적 제외)
- ※ 비즈니스데이 4일 동안 약 9만 명 전문관람객 방문, 퍼블릭데이 2일동안 약 20만 명 방문
-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(KF-X)와 소형무장헬기(LAH) 등 대형 국책 개발사업 성과와 더불어 수출형 수리온 시제기(KUH-1E), 미래형 장갑차'레드백'등 내수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이 최초로 공개
- 경남 도내 7개 기업 등 참가(동성TCS, 동화ACM, 대화항공, 씨엔리, 에스앤케이항공, 케이피항공, 코오롱테크컴퍼지트 등)
- 격년제로 열리는 '서울 아덱스 2021' 행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개최될 예정

□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, 독자 기술력으로 날아 오른다

-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(UAM·Urban Air Mobility)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현대차그룹 등이 UAM 시장에 출사표
 - 사업기간: ~'23.11. ○ 사업비 : 448억 원(민간투자 포함)
- 자율비행 개인항공기는 상황에 따라 원격조종하는 무인기 형태나, 사람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비행체 형태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, OPPAV(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)라고 함.
- OPPAV 기술개발(2019~2023) 주요 내용
 - 항우연 : 시제기 형상, 구조, 프롭, 지상장비 설계 및 해석
 - KAI : 형상설계, 비행체 제어, 안정성 및 구조해석 등
 - 현대자동차 : 분산 전기추진 장치, 모터·인버터 및 배터리 개발 등



OPPAV 사업 정량적 목표

- 유상하중 : 100kg 이상
- 순항속도 : 시속200km 이상
- 비행거리 : 50km이상
- 소음수준 : 72dBA SEL 이하



도내 동향

□ K-PAV 2019 국제 콘퍼런스, 진주서 성황리 개최

- 경남도,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이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'K-PAV 2019 국제 콘퍼런스'가 31일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
- 올해 4회째를 맞이한 'K-PAV 국제 콘퍼런스'는 국내·외 PAV(도로주행 및 비행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)에 대한 정책동향과 전망,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

□ 창원 영풍전자-스위스 콥터, 항공기술 공동개발

- 창원 소재 항공전자, 전기·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개발·제작 전문기업인 영풍전자(주)(대표 류하열), 스위스 콥터(Kopter)사와 지난 16일 전자분야 기술, 제작에 관한 MOU체결
- 이번 MOU체결은 지난해 10월 '경남항공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'의 일환으로 경남TP가 프랑스 항공컨설팅 전문기업인 컨설파트에어로사(Consult Aero)와 함께 영풍전자의 품질, 경영, 재무, 원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성과로 볼 수 있음.



관내 동향

□ '사천에어쇼' 31만 8천명 다녀갔다

-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서 '사천에어쇼'로 명칭변경 후 첫 출발. 남부 유일의 에어쇼를 넘어 사천이라는 도시를 브랜드화하여 프랑스 파리, 영국 판보로, 싱가포르 에어쇼 등 세계3대 에어쇼를 잇는 국제에어쇼로 거듭나고자 하는 포부를 담은.
- 행사기간 4일 동안 32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급 관람객 수 기록, 내용적 측면에서도 9개 분야 11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호응 얻음.
-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에서 생산한 T-50B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을 이륙에서 착륙까지 모든 비행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풀쇼(PULL SHOW)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사천에어쇼가 가진 장점임.

작성일	2019. 11. 13.(수)	보고일	2019. 11. 13.(수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(055-831-3470)